

1. 조선 후기 광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부의 통제 정책으로 잠채가 사라졌다.
- ② 자본과 경영이 분리된 생산 방식이었다.
- ③ 청과의 무역으로 은의 수요가 증가하였다.
- ④ 17세기 이후 민간인의 광산 채굴을 허용하였다.

2. 고려의 지방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 ㄱ. 양계 지역은 계수관이 관할하였다.
- ㄴ. 수령이 파견된 주현보다 수령이 파견되지 않은 속현의 수가 많았다.
- ㄷ. 성종 때 12목이 설치되었다.
- ㄹ. 향·소·부곡 등의 특수행정조직이 있었다.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ㄹ
- ③ ㄱ, ㄷ, ㄹ
- ④ ㄴ, ㄷ, ㄹ

3. <보기>의 ㉠에 해당하는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의 노비인 만적 등 여섯 명이 북산(北山)에 나무하러 갔다가 공사(公私) 노비들을 모아 놓고 말하기를, “장군과 재상이 어찌 타고난 씨가 따로 있겠는가? 때만 만나면 누구나 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라고 어찌 빠 빠지게 일만 하고 채찍 아래에서 고통만 당하겠는가?”라고 하였다. (중략) “각자 자기 주인들을 때려 죽이고 노비 문서를 불태워버리자. 이로써 이 나라에 다시는 천인이 없게 하면, 공경장상을 우리들이 모두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 ① 교정도감을 설치하여 국정을 장악하는 한편 도방을 통해 군사적 기반을 강화하였다.
- ② 노비안검법을 실시하여 억울하게 노비가 된 자를 해방하였다.
- ③ 풍수지리설을 앞세워 서경천도를 적극 추진하였다.
- ④ 딸들을 왕에게 시집보내어 권력을 잡고 척준경과 함께 난을 일으켰다.

4. <보기>의 밑줄 친 ‘그’의 저술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그는 당나라로 가던 도중 진리는 마음속에 있음을 깨닫고 유학을 포기하였다. 여러 종파의 갈등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융화, 통일시키려 하였으므로, 훗날 화쟁국사(和靜國師)로 추앙받았다.

- ① 『해동고승전』
- ② 『대승기신론소』
- ③ 『왕오천축국전』
- ④ 『화엄일승법계도』

5. <보기>의 개헌 시기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기>—

- ㄱ. 대통령 3회 연임 허용
- ㄴ. 대통령 직선제 및 5년 단임
- ㄷ. 대통령 직선제, 국회 양원제
- ㄹ. 대통령은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간선

- ① ㄱ - ㄴ - ㄷ - ㄹ
- ② ㄴ - ㄷ - ㄱ - ㄹ
- ③ ㄷ - ㄱ - ㄹ - ㄴ
- ④ ㄹ - ㄴ - ㄷ - ㄱ

6. <보기>의 글을 쓴 학자의 주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검소하다는 것은 물건이 있어도 남용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자신에게 물건이 없다 하여 스스로 단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우리나라 안에는 구슬을 캐는 집이 없고 시장에 산호 따위의 보배가 없다. 또 금과 은을 가지고 가게에 들어가도 떡을 살 수 없는 형편이다. …… 이것은 물건을 이용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이용할 줄 모르니 생산할 줄 모르고, 생산할 줄 모르니 백성은 나날이 궁핍해지는 것이다.

- ① 균전론을 내세워 사농공상 직업에 따라 토지를 분배하여 자영농을 육성할 것을 주장하였다.
- ② 상공업을 육성하고 선박, 수레, 벽돌 등 발달된 청의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자고 제안하였다.
- ③ 처음에는 여전론, 이후에는 정전제를 내세워 자영농 육성을 위한 토지제도 개혁을 주장하였다.
- ④ 통일 신라와 발해가 병립한 시기를 남북국 시대로 설정하여 발해를 우리 역사의 체계 속에 적극적으로 포용하였다.

7. <보기>의 정책이 시행된 왕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백성들이 육전[육의전(六矣廛)] 이외에는 허가받은 시전 상인들과 같이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체제공이 아되기를 “(전략) 마땅히 평시서(平市署)로 하여금 20, 30년 사이에 새로 벌인 영세한 가게 이름을 조사해 내어 모조리 없애도록 하고, 형조와 한성부에 분부하여 육전이 아니라면 난전이라 하여 잡혀 오는 자들을 처벌하지 말도록 할 뿐만 아니라 잡아 온 자를 처벌하면, 장사하는 사람들은 서로 매매하는 이익이 있을 것이고 백성들도 가난에 대한 걱정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 원망은 신이 스스로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하니 왕께서 따랐다.

- ① 법령을 정비하여 속대전을 편찬하였다.
- ② 청과 국경선을 정하고 백두산정계비를 세웠다.
- ③ 조세제도를 개편하여 영정법을 시행하였다.
- ④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초계문신제를 시행하였다.

8. <보기>에서 설명하는 책의 제목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 1433년(세종 15)에 편찬되었다.
- 각종 병론(病論)과 처방을 적었다.
- 전통적인 경험에 기초했다.
- 조선의 약재를 중시했다.

- ① 『향약집성방』
- ② 『동의보감』
- ③ 『금양잡록』
- ④ 『칠정산』

9. <보기 1>의 밑줄 친 ‘이 법’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1>—

영의정 이원익이 아되기를, “각 고을에서 바치는 공물이 각급 관청의 방납인들에 의해 중간에서 막혀 물건 하나의 가격이 몇 배 또는 몇 십 배, 몇 백 배가 되어 그 폐단이 이미 고질화되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마땅히 별도로 하나의 청을 설치하여 이 법을 시행하도록 하소서.”라고 하니 왕이 따랐다.

—<보기 2>—

- ㄱ. 이 법이 실시된 뒤 현물 징수가 완전히 없어졌다.
- ㄴ. 처음에는 경기도에서 시험적으로 시행되었다.
- ㄷ. 과세 기준을 가호 단위에서 토지 결수로 바꾸었다.
- ㄹ. 풍흉의 정도에 따라 조세 액수를 조정하였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ㄷ, ㄹ

10. <보기>의 사실이 발표되는 계기가 된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 그러나 슬프도다. 저 개돼지만도 못한 이른바 우리 정부의 대신이란 자들은 자기 일신의 영달과 이익이나 바라면서 위협에 겁먹어 머뭇대거나 벌벌 떨며 나라를 팔아먹는 도적이 되기를 감수하였던 것이다. 아, 4,000년의 강토와 500년의 사직을 다른 나라에 갖다 바치고, 2,000만 국민을 타국의 노예가 되게 하였으니, …… 아! 원통한지고, 아! 분한지고. 우리 2,000만 타국민의 노예가 된 동포여! 살았는가, 죽었는가? 단군, 기자 이래 4,000년 국민정신이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망하고 말 것인가. 원통하고 원통하다. 동포여! 동포여!

- ① 친러 성향의 내각이 수립되어 러시아의 정치적 간섭이 강화되었고, 열강의 이권 침탈도 심해졌다.
- ② 러일전쟁 승리 이후 일본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는 조약을 체결하여 대한제국을 일본의 보호국으로 만들었다.
- ③ 일본은 헤이그 특사 파견을 문제 삼아 고종 황제를 강제로 퇴위시키고, 대한제국의 군대를 해산하는 조약을 체결했다.
- ④ 총리 대신 이완용과 조선 통감 데라우치 사이에 조약이 체결되어 국권을 상실하였다.

11. <보기>의 고려 토지제도 (가)~(라) 각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 (가) 조신(朝臣)이나 군사들의 관계(官階)를 따지지 않고 그 사람의 성품, 행동의 선악(善惡), 공로의 크고 작음을 보고 차등 있게 역분전을 지급하였다.
- (나) 경종 원년 11월에 비로소 직관(職官), 산관(散官)의 각 품(品)의 전시과를 제정하였다.
- (다) 목종 원년 12월에 양반 및 군인들의 전시과를 개정하였다.
- (라) 문종 30년에 양반전시과를 다시 개정하였다.

- ① (가) - 후삼국 통일 전쟁에 공이 있는 사람들에게 지급하였다.
- ② (나) - 인품을 반영하여 토지를 지급하였다.
- ③ (다) - 실적이 없는 산관은 토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다.
- ④ (라) -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가 지급되고, 문·무관의 차별이 거의 사라졌다.

12. <보기>의 사건들을 시간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기>—

- ㄱ. 신라 - 건원(建元)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만들었다.
 ㄴ. 가야 - 대가야가 멸망하면서 가야 연맹이 완전히 해체되었다.
 ㄷ. 고구려 - 낙랑군을 완전히 몰아내고 대동강 유역을 확보하였다.
 ㄹ. 백제 - 수도인 한성이 함락되고 왕이 죽자 도읍을 웅진으로 옮겼다.

- ① ㄱ - ㄴ - ㄷ - ㄹ
 ② ㄴ - ㄷ - ㄹ - ㄱ
 ③ ㄷ - ㄹ - ㄱ - ㄴ
 ④ ㄹ - ㄱ - ㄴ - ㄷ

13. <보기>의 밑줄 친 ‘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왕이 행차에서 돌아와 그 대나무로 피리를 만들어 월성의 천존고(天尊庫)에 간직하였다. 이 피리를 불면 적병이 물러가고 병이 나으며, 가뭄에는 비가 오고 장마에는 날씨가 개며, 바람이 잦아지고 물결이 평온해졌다. 이를 만파식적으로 부르고 나라의 보물이라 칭하였다.

—『삼국유사』—

- ① 녹읍을 부활시켰다.
 ② 9주 5소경을 설치하였다.
 ③ 정전을 지급하였다.
 ④ 고구려 부흥운동을 지원하였다.

14. <보기>의 조약이 체결된 이후에 일어난 사건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제1관> 조선국은 자주국으로서 일본국과 평등한 권리를 보유한다.

<제7관> 조선의 연해 도서는 지극히 위험하므로 일본의 항해자가 자유로이 해안을 측량함을 허가한다.

- ① 만동묘가 철폐되었다.
 ② 이범윤이 간도 시찰원으로 파견되었다.
 ③ 통리기무아문이 설치되었다.
 ④ 영남 유생들이 만인소를 올렸다.

15. <보기>의 유물들이 발견되는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 이른 민무늬 토기 • 덧무늬 토기
 • 눌러찍기무늬 토기 • 빗살무늬 토기

- ① 세형 동검, 잔무늬 거울 등을 사용하였다.
 ② 고인돌과 돌널무덤을 사용하였다.
 ③ 공주 석장리 유적과 청원 두루봉 동굴 유적이 대표적인 유적지이다.
 ④ 갈돌과 갈판 등 간석기를 사용하였다.

16. <보기>에서 설명하는 나라의 법률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은력(殷曆) 정월에 하늘에 제사를 지내며 나라에서 대회를 열어 연일 마시고 먹고 노래하고 춤추는데, 영고(迎鼓)라고 한다. 이때 형옥(刑獄)을 중단하여 죄수를 풀어 주었다.

—『삼국지』 권30, 「위서」 30 오환선비동이전—

- ①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게 했다.
 ② 도둑질을 하면 그 물건의 12배를 변상케 했다.
 ③ 형벌이 매우 엄하여 사람을 죽인 사람은 사형에 처하고 그 집안사람은 노비로 삼았다.
 ④ 남녀 간에 간음을 하거나 투기하는 부인은 모두 죽였다.

17. <보기>의 글을 쓴 인물의 주장과 같은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우리 조선의 역사적 발전의 전 과정은 가령, 지리적 조건, 인종학적 골상, 문화 형태의 외형적 특징 등에서 다소의 차이는 인정되더라도, 외관적인 소위 특수성은 다른 문화 민족의 역사적 발전 법칙과 구별되어야 하는 독자적인 것은 아니며, 세계사적·일원론적인 역사 법칙에 의해 다른 여러 민족과 거의 같은 궤도로 발전 과정을 거쳐온 것이다.

- ① 민족 정신을 강조하여 우리의 고유한 특색과 전통을 찾았다.
 ② 신채호와 박은식의 사학을 계승하였다.
 ③ 역사학의 주관적 해석을 배제하고 문헌 고증을 중시하였다.
 ④ 한국사의 발전과정을 사회 경제 사학의 관점에서 서술하였다.

18. <보기>의 독립운동단체 결성 시기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보기>————

 - ㄱ. 조선 의용대
 - ㄴ. 의열단
 - ㄷ. 참의부
 - ㄹ. 대한 광복회
 - ㅁ. 근우회

- ① ㄱ－ㄴ－ㄷ－ㄹ－ㄱ
- ② ㄴ－ㄷ－ㄹ－ㄱ－ㄱ
- ③ ㄷ－ㄹ－ㄹ－ㄴ－ㄱ
- ④ ㄹ－ㄴ－ㄷ－ㄹ－ㄱ

19. <보기>의 조선시대 사건을 시간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보기>————

ㄱ. 기묘사화	ㄴ. 을묘왜변
ㄷ. 계유정난	ㄹ. 무오사화

- ① ㄱ－ㄴ－ㄷ－ㄹ
- ② ㄴ－ㄷ－ㄹ－ㄱ
- ③ ㄷ－ㄹ－ㄱ－ㄴ
- ④ ㄹ－ㄱ－ㄴ－ㄷ

20. <보기>는 동학농민군이 제시한 「폐정개혁안」 12개조 중 일부이다. 이 중 갑오개혁에 반영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보기>————

 - ㄱ. 무명의 잡다한 세금은 일체 거두지 않는다.
 - ㄴ. 토지는 균등히 나누어 경작한다.
 - ㄷ. 왜와 통하는 자는 엄중히 징벌한다.
 - ㄹ. 젊어서 과부가 된 여성의 재혼을 허용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ㄷ, ㄹ